



일본 선수의 태클 피하는 U-23 대표팀 백기운.

대한축구협회

한국 축구, 아시안게임 4연패 '비상등'

U-23 이민성호, 일본에 충격패
2살 어린 팀에 망신... 4강 탈락
아시안게임 전초전 출전으로 일관

전술도 희망도 보여주지 못해
40년 만의 올림픽 본선 실패 후
"변한 것이 없다" 비판 쏟아져

이민성호가 두 살 어린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수준 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0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일본에 0-1로 졌다. 일본이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겨냥해 기준

나이보다 두 살 어린 21세 이하(U-21) 선수들로 팀을 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뼈아픈 결과다.

그러나 이번 대회 내내 드러난 이민성호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한일전 패배는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AFC 아시안컵은 9월 개막하는 2026 아시안게임의 아시아 지역 예선을 위한 전초전 성격이 짙었다. 대표팀은 2020년 태국 대회 이후 6년 만의 정상 탈환을 통해 아시안게임 4연패를 향한 동력을 얻겠다는 각오로 나섰다. 조별리그부터 이어진 답답한 경기력은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란과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긴 대표

팀은 2차전에서 약체 레바논을 상대로 4골을 몰아쳤지만 2골을 헌납했다.

3차전에서 두 살 어린 우즈베키스탄에 0-2로 완패한 한국은 1승 1무 1패(승점 4)를 기록, 객관적 전력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은 중국(승점 5·1승 2무)에도 승점에서 뒤지는 수모를 겪었다.

이민성호는 이란이 최종전에서 레바논에 0-1로 탈미를 잡히는 이번 덕분에 조 2위로 8강에 턱걸이했으나 결국 4강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숙적' 일본을 상대로 전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전반 내내 사실상 '반코트' 경기에 가까운 열세에 슈팅 수에서도 1-10으로 밀리며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린 한국은 결국 결승골을 헌납했고, 후반 들어 공세를 강화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으나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번 대회 5경기에서 총 6득점·6실점을 그치며 공수 양면에서 허점을 노출한 대표팀은 결과적으로 확실한 전술적 해법

도, 세대교체의 희망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과제만을 남기게 됐다.

지난 2024년 카타르 대회 8강 탈락으로 40년 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사를 겪고도 변한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직전 대회 황선홍 전 감독에 이어 이번 이민성 감독까지, '2002 한일 월드컵 영웅' 출신 지도자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대한축구협회의 인사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축구 선진국들처럼 연령별 대표팀에 특화된 유소년 전문 지도자를 발굴해 지휘봉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협회가 '이름값' 높은 지도자에게만 의존하다 실패를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아시안게임 4연패는 커녕, 한국 축구의 암흑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정·임종언 금 예약... K쇼트트랙 '간판스타'

벨라 밀라노
0-15 쇼트트랙 전망

10년 넘게 세계 빙판 호령한 최민정
압도적인 체력에 폭발적 스피드
평창·베이징대회 연속 금메달

평창 키드 출신 무서운 10대 최민정
월드투어 4개 대회서 금5 수확
"세계 최강 단지누 무섭지 않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27·성남시청)과 임종언(18·고양시청)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오랜 세월 한국 쇼트트랙 에이스로 활약한 최민정은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 획득을 노리고, 신예 임종언은 첫 올림픽 무대에서 파란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최민정

임종언

최민정은 서현고에 다니던 2014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종합 2위에 올라 첫 태극마크를 단 뒤 10년 넘게 세계를 호령한 간판스타다.

압도적인 체력과 폭발적인 스피드, 우수한 경기 운영 능력 등 모든 면을 갖춘 최민정은 첫 올림픽 무대였던 2018 평창 대회에서 여자 1,500m와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올랐다.

이후 평창 올림픽 고의 충돌 피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아픔을 겪었으나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여자 1,500m 금메

달, 여자 1,000m 은메달, 여자 3,000m 계주 은메달을 목에 걸며 간재를 과시했다.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뒤엔 2022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대회 4관왕에 올라 4년 만에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쉬지 않고 달려온 최민정은 장비 교체와 개인 훈련, 휴식을 위해 2023-2024시즌 태극마크를 스스로 반납했고, 1년 뒤 복귀해 정상에 재확인했다.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첫 국제종합대회인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

음으로 3관왕에 오르며 화려하게 컴백했다.

최민정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을 생애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각오로 준비 중이다. 남녀 대표팀 통합 주장인 최민정은 고의 충돌 의혹으로 사이가 멀어졌던 심석희(서울시청)와 합심해서 계주 종목에 준비하는 등 마음의 상처를 털고 모든 힘을 쏟고 있다.

두 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한 최민정은 이번에 금메달을 추가하면 전이경(4개)과 함께 동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쓴다.

최대 경쟁자는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다. 사로는 올림픽 예선을 겸한 2025-2026 ISU 쇼트트랙 월드컵 1-4차 대회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만 5개를 석권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최민정이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을 이끈다면, 남자 대표팀은 2007년생 '신성' 임종언이 앞장선다. 임종언은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해성처럼 나타나 정상급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한 신동 에이스다.

그는 시니어 국제무대 데뷔전인 2025-

2026 ISU 월드컵 1차 대회에서 2관왕에 오르는데 등 월드컵 1-4차 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전망을 밝혔다.

임종언은 초등학교 재학 시절 평창 올림픽을 시청하면서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꿈을 품은 '평창 키드'다.

2023년 8월 세상을 떠난 고(故) 송승우 코치는 임종언이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다. 임종언은 최근 "송 코치는 처음 선수 생활을 했을 때 날 가르쳐준 선생님이로 부상 등으로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시면서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라며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송 코치님 영전에 바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종언의 최대 경쟁자는 '세계 최강' 윌리엄 단지누(캐나다)다. 단지누는 올 시즌 ISU 월드컵 1-4차 대회에 걸린 남자부 개인전 12개 금메달 중 7개를 쓸어 담으며 두 시즌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한 선수다.

임종언은 밀릴 생각이 없다. 그는 "단지누는 레이스 후반 속도가 떨어질 때가 있다"며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연합뉴스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